



특집12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서천군 발전의 50년 기틀을 다지는 주춧돌이 되겠다!



노 박 래 | 서천군수

1949년 충남 서천 출생
1974년 거교 검정고시
1987년 서천군 기획실장
2004년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장
2005년 충청남도 공보관
현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2014년 민선 6기 서천군수

▲ 당선된 소감

저를 서천군수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서천군민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의 마음은, 꿋꿋한 소신으로 서천군 발전과 힘찬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열망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우리군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시대를 열어가겠다.

우리 군민의 눈물과땀으로 이뤄낸 정부대안사업(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그 결실이 마침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결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어 서천군이 충남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강한 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현안 과제를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전 공직자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 힘차게 나아가는 서천군의 대표로 저를 선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린다.

▲ 현재 서천군의 주요 현안과 제를 꼽으라면?

서천군은 인구 6만의 작은 농어촌 도시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경기 침체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를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향국가생태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과 공사에 들어가고, 김 가공 특화단지와 종천 제2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군 발전을 견인할 튼튼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한다. 기업의 유치만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한 생동감 넘치는 서천군을 만들 어낼 수 있다.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 온 사회 복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서천군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맞춤형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대안사업 유치와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내발적인 경제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의 성장 기반은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확대 조성과 정향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통한 외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체제를 완성해야만 한다. 특히 농공단지 가속사 신축과 어르신, 여성,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등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 근로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지원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한 중 FTA 등 세계 각국과의 무역개방과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연안정비 사업, 항 포구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 생산기반을 개선하고,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 특히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을 확대하겠다.

● 특집12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아울러 충남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김 산업의 경우, 김 가공 특화단지의 활성화와 친환경 생산설비 지원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내고, 멀치 특화단지 조성, 도 산하 김 연구소 설치 등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머무는 관광, 즐기는 문화·예술, 건강한 생활체육 정착

사계절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현하겠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우리군의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항 송림생태관광지구 지정과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문현서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체험 관광테마벨트 구축 등 명품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 또한 군립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역량 함양에 노력하겠다.

특히 서천군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여 충남도민과 서천군민의 대단위 회합의 장이 될 2016년 충남 도민체전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의 생활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

지역차별 없는 균형개발 및 군민 숙원사업 적극 추진

금강과 서해, 천방산, 희리산과 넓은 평야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맞춤형 균형개발 전략을 수립 시행하겠다.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의 초기 완공과 지속적인 상수도 보급 및 하수도 정비, 군민이 이용하기 편한 군 청사 전립 추진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군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 점검과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생태환경의 보존과 최적의 교육·보건·복지 기반 조성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우수사례 대상,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만족도 전국 2위 등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전국 최고의 복지 메카 서천군의 위상에 걸맞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서천군 직영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겠으며,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 구)장항제련소 오염부지 종합대책 마련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전군민이 함께 하는 서천사랑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도시 서천군을 위해 지역 전문대학 설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가정과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18년간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대신해서 서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정부대안사업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대안사업 유치 효과가 서천군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연구·교육기관 유치, 인구 증가, 이 모든 것은 정부대안사업 활성화로부터 비롯된다. 서천군 전 분야에 걸쳐 연계발전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2020년 제가 그리는 서천군의 모습은 3가지로 대표될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그것.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작지만 알차고 힘 있는 도시, 군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폐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정주여건 속에서 살고 싶은 도시 서천군이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서천군의 미래이다.

▲ 마지막으로 서천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저를 지지하여 주신 서천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 결코 잊지 않겠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군정을 이끌겠다. 지난 9년 동안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배우고 익히고 느낀 모든 것을 군정에 담아내겠다. 청렴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공직자세를 바탕으로, 모든 군민을 부모와 형제 같이 섬길 수 있는 군수와 공직자가 되겠다. 탁상공론보다는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갈등과 대립은 대화와 소통으로 화합 단결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 군민에게 이로운 행정, 군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겠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와 기업 유치,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서천군을 만들겠다. 인구 10만의 모두가 잘 사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로 믿고 나눌 수 있는 도시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저, 노박래는 빙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군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서천군 발전을 위한 50년 기틀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서천군,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믿음으로 지켜봐 달라.